

격 려 사

'살아있는 바다, 숨쉬는 연안'이라는 주제로 오는 2012년 여수에서 개막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막이 이제 채 8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

엑스포는 올림픽,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.

**특히 살아있는 바다, 숨쉬는 연안
이라는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는
지구와 해양의 조화, 지구 생태계의
조화로운 어울림을 모색하고 있다는
점에서 그동안 개발 위주의 경제
발전에서 생태, 환경과의 조화를
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
있다고 하겠습니다.**

**이와 같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위상과
주제는 우리 불교계에 특별한 역할을
요청하고 있습니다. 자연과 전통이**

**잘 보존되어 있는 남도의 특성에
1700년에 걸쳐 이룩한 전통문화를
잘 간직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결합은
이번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
커다란 시너지 역할을 할 것임에
분명하게 때문입니다.**

**특히 여수세계박람회는 전시, 컨벤션은
물론 회의와 포상관광 등이 결합되어
이른바 MICE 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
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박람회 기간
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**

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

이러한 기회에 우리 불교계에 템플스테이라는 최고의 문화관광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.

템플스테이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발간한 '관광 산업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연구'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관광

**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문화를
알릴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
자리 잡고 있습니다.**

**한국불교의 유구한 전통은 물론
의식주 모두를 망라한 우리의 문화와
수행, 상생의 가치를 선양하는 템플
스테이는 단순한 사찰문화체험을 넘어
한국인의 정서와 전통 가치관을 알릴
수 있는 최고의 문화상품이기도 합니다.**

특히 이곳 여수는 화엄사를 비롯하여

인근에 송광사, 대흥사, 백양사는 물론 쌍계사 등의 조계종 주요 본사가 많이 위치하여 있습니다.

이들 본사를 비롯하여 많은 말사들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 사찰들의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격찬을 받아 왔습니다.

이번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와 그동안 뜨거운 호응을 받아온 템플스테이가 만나면 문화관광에 엄청난

**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제한
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**

**오늘 이 자리는 이제 2년여 앞으로
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
치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
불교계가 어떻게 그 힘을 모아야
하는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
것입니다.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의
성공적인 개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
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
선정된 '문화 콘텐츠'의 개발 육성과**

**한국 관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
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
바랍니다.**

**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역시 이와
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관심과 노력을
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**

**끝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를
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
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,**

**여수시 관계자 여러분, 그리고 범불교
위원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
전하면서 격려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.
감사합니다.**

불기2554년 3월 13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